



Manshurian
Fullmoon Maple

당단풍나무

늦가을에는 잎이 검붉게 말라서 보기 흉하게 붙어 있지만, 가을이면
전국의 가을산을 붉게 물들이는 단풍은 거의 이 당단풍나무가 차지한다.



최명섭
(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)

- ▶ 과명 : 단풍나무과
- ▶ 학명 : *Acer pseudosiboldianum*
- ▶ 영명 : Manshurian Fullmoon Maple
- ▶ 일명 :とうはうちわかえで

1. 생태적 특성

전국의 표고 100~1,700m 사이의 산야에 자생하는 낙엽활엽소교목으로 수고 8m 에 달한다. 비옥하고 토양수분이 적당한 북향의 산기슭과 계곡에서 층층나무, 갈참나무, 신갈나무 등의 중간층에서 모여 자란다. 추위에는 대단히 강하며 건조한곳 보다는 습기가 적당한 곳에서 양호한 생장을 보이고 내음성은 강하여 다른 나무의 아래에서도 잘 자란다.

2. 형태적 특성

하나의 줄기가 올라와 여러 개의 굵은 가지로 수형이 이루어지며 작년에 자란 가지는 녹색이다. 잎은 마주나며 길이 7~10cm로 원형이고 밑은 심장형이며 손바닥 모양으로 9~11개로 갈라지고 잎 뒤 맥상에 연한 털이 있다. 꽃은 자웅1가화로 산방상 원추화서로 정생하고 밑으로 늘어지며 5월에 길이 1cm 정도의 자홍색(紫紅色) 꽃이 핀다. 종자에는 날개가 있고 긴 차원형이며 길이 2cm내외로 10월에 익는다.

유사종으로는 종자의 날개 끝이 좁은 좁은 단풍(*A. Acer pseudo-siboldianum* var. *koreanum*), 잎이 절저(截底)이고 종자의 날개가 넓게 벌어지는 것을 넓은고로실나무(var. *ambiguum*), 열매가 크고 그 수가 적은 것을 왕단풍(var. *macrocarpum*), 잎 뒷면과 열매에 백색 털이 남아 있는 것을 털참단풍(var. *lanuginosum*), 2개의 시과(翅果)가 반월형인 것을 서울단풍(var. *nudicarpum*), 잎은 밑의 양쪽 열편이 합쳐지고 열매가 예각으로 벌어지며 날개는 타원형인 것을 산단풍(var. *ishidoyanum*)이라고 한다.



3. 조경수로서의 활용

손바닥 모양의 잎으로 구성된 수관(樹冠)은 차광미(遮光美)가 뛰어나고 우산모양의 아름다운 수형은 여름철의 녹음을 한층 더 시원스럽게 하며 가을에 무르익는 붉은색 단풍과 열매는 흡사 꽃같은 느낌을 주며 한국의 가을 산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것은 대부분 이 단풍이다.

그늘에 견디는 능력이 강하여 큰 나무 아래 식재하면 계절의 변화를 맛 볼수 있고 단목으로 식재해도 관상가치가 매우 높다.

4. 번식법

번식법으로는 삽목, 접목, 종자, 휘묻이가 가능하다.

—삽목

3월경에 지난 해 자란 싹한 가지를 10~15cm 길이로 잘라 진흙이나 진흙 경단을 붙여 모래에 꽂는다. 6월경에 그해 자란 가지중 다소 굳어진 것을 10cm길이로 잘라 반 정도 묻히게 진흙에 꽂은 후 공중 습도가 다습하게 항상 안개를 뿜어 관리하면 뿌리가 내린다.

-접목

3월경에 절접이나 가을에 아접(芽接)을 한다.

-파종

10월경 종자가 성숙 되었을때 채종하여 따뜻한 남쪽에서는 가을에 파종하고 추운 곳에서는 봄에 파종한다. 파종할 때 날개를 비벼서 없앤 후 물에 4시간쯤 담갔다가 파종한다.

파종 후 파종상이 마르지 않도록 벚짚을 잘라서 덮어주고 80%쯤 발아하면 벚짚을 벗기고 도장하지 않게 한다.

3~4cm 쯤 자라면 완전 부숙된 깨묵 액비를 준다. 가을이면 15cm쯤 자라므로 2년째 되는 봄에 넓혀 심는다.

-취물이

적당한 가지를 골라 2cm 넓이로 껍질을 환상으로 벗긴 다음 물이끼를 대고 비닐로 싸매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여 뿌리가 내리면 잘라내는 고취법도 있다.

5. 그 밖의 용도

특별한 용도는 없으나 겨울에도 줄기의 색깔이 녹색이어서 꽃꽂이용으로 소량 사용된다. 🌳

